

강진 '불금불파' 5~13일 휴식...19일 피날레

강진군이 당초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총 6일간 운영 예정이었던 '불금불파' 행사를 농번기 운영 여건을 반영해 일부 일정을 조정해 운영한다.

군은 농번기철 불고기 판매 운영 어려움에 따라 6월 5일부터 13일까지 휴장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오는 6월 19일~20일 열리는 '불금불파 엔딩행사' 준비에 총력해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이다.

이번 엔딩행사에서는 지역 대표 메뉴인 '불고기 반값행사'를 진행하며, 방문객 참여형 프로그램인 보물찾기와 랜덤 게임 등 현장 이벤트를 운영해 가족 단위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하멜촌 맥주를 무료로 시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민자치 공연, 지역 가수 공연과 EDM DJ 무대를 연이어 선보이며 특별가수 초청 공연까지 더해 초여름 밤의 즐거움을 한층

더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번기철 군민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잠시나마 시원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농번기철 불가피하게 6월 5일부터 13일까지 휴장하게 됐다"며 "오는 19~20일 엔딩 행사에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운영시간, 장소, 세부 프로그램 및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강진군 공식 안내 채널을 통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군은 엔딩행사에서 불고기 반값 행사와 체험형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공연과 시음 프로그램을 마련해 초여름 밤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운재 기자



강진 불금불파 개장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 황토랑쌀, 전남 10대 브랜드쌀 17년 연속

무안군 대표 브랜드쌀 '황토랑쌀'이 올해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되며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황토랑쌀은 2026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17년 연속·총 19회 선정 기록을 이어갔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은 전라남도도가 시·군 추천 브랜드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품종 순도와 품위, 식미평가를 비롯해 친환경 인증, 품질관리 체계 등에 대한 서류·현장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황토랑쌀은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재배된 원료곡을 사용해 우수한 미질과 밥맛을 인정받았으며, 품질관리 체계와 브랜드 관리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무안군은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서용운 기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연구용역 과제 선정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전경 사진

/목포 시청 제공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센터장 윤영승)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용역 「전남일원 김 생산해역 시료 확보 및 전처리」 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8년까지 3년간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김 수출 확대에 따른 안전성 관리 강화와 생산해역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추진되며, 총사업비 4억 5천만 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다.

센터는 전남지역 4개 권역 60개

정점을 대상으로 해수와 물김 시료를 연간 10회 채취하고, 환경기초항목 조사와 위해요소 분석을 위한 전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생산해역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로, 최근 수출 증가에 따라 생산해역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인공지능 기반 선진 농업 기술 보급체계 전환한다

전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선진 농업 기술 보급체계 전환을 목표로 미래 농업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함평군은 "이날 농업기술센터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기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전문역량교육'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업 과학 기술 정보 서비스

(ASTIS)'는 과학영농시설과 농업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센터 기술 보급 담당자들은 ASTIS를 활용해 농업인들에게 실용적인 농업 기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ASTIS 거점기관'으로 선정됐

며, 데이터 연계 활용 경진대회에서 거점기관 육성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업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역량의 우수성을 전국에 입증했다.

이번 교육은 함평군이 그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능력을 진단하고 현장 맞춤형 해결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확이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 범씨 온탕소독 무료 서비스 실시 완료

신안군은 벼 재배농가의 병해충 예방과 영농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 '범씨 온탕 소독 무료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군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13개 읍면 농기계대사업소에서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올해 847농가 30.5톤, 지금까지 누적 6,089농가 1,758톤의 범씨 온탕 소독을 실시했다.

범씨 온탕 소독 무료 서비스는 병해충 예방으로 초기 생육을 안정화하고, 안전한 종자 관리로 쌀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며, 농가 비용 절감으로 소규모 농가의 영농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어 많은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의 방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영암군, 어린이 국가유산해설사가 들려주는 영암 이야기

영암군이 주최하고 영암문화원이 주관하는 '2026 영암국가유산야행'에서 지역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국가유산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지역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배우고 관람객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참여형 역사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 어린

이들은 사전 교육과 현장 실습을 거쳐 영암읍성, 영암향교, 열무정 등 주요 국가유산 현장에서 해설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어린이 해설사들은 국가유산의 유래와 역사적 의미를 비롯해 읍묘 왜변과 영암성대첩에 얽힌 이야기 등을 또래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단순한 체험 참가자가 아닌 지역문화의 주체로 참여해 영암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배우고 알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철 영암군 문화예술과장은 "지역의 미래세대가 국가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가고싶은 영암은 어디인가? 장성호 수변길

영암군출장소대리

수변 데크길(왼쪽)

황금빛출렁다리

수변 데크길(오른쪽)

장성군 Jangseong

영로우 시티